총선 D-2 ‘르포’ - 광주 광산구 갑 가 보니

“그래도 민주당 찍어야” “민주당 덕 본 것 뭐 있나”

광주 대표적 도농복합 선거구… 표심 갈려

신흥 도심지 민주·농촌 지역 무소속 지지

“한나라당이 힘을 받고 있단 디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야제 어디를 찍것어.”, “그렇게 민주당 찍어줬어도 된 것도 없고 재미 본 것이 뭐 있어.”

총선을 3일 앞둔 6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 5일장. 18대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광산구 갑 선거구에서는 통합 민주당에 대한 애증과 갈등이 표심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시장 입구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김모(여·68)씨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밀어준 뒤 매번 후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김동철 후보를 밀어줘야지 누굴 찍것냐”고 말했다.

잡화상 김모(56)씨는 “민주당이 정떨어진다고 다른 당을 찍을 수는 없어서 비례 대표는 민주당을 찍고, 지역구는 무소속 송병태 후보를 밀어주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민주당 김동철 후보와 무소속 송병태 후보로 표심이 좁혀지고 있었지만, 정작 누굴 찍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많았다.

소광경로당에서 만난 강모(74)씨는 “민주당 김 후보를 찍자니 구청장 하면서 지역을 위해 일했던 송 후보가 걸리고 해서 영 맘을 잡을 수가 없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광주의 대표적인 도·농복합 선거구임을 반영하듯 신흥 도심인 운남동, 우산동, 월곡동에서는 김동철 후보를 꼽는 유권자들이 많았고, 농촌 지역인 동곡동, 본양 등지에서는 무소속 송병태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운남동에서 만난 양모(35)씨는 “그동안 참신하고 깨끗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김동철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동곡동 주민 이모(77)씨는 “우리 지역 출신인데다 구청장을 지내면서 이미 검증을 거친 송 후보에 맘이 끌린다”고 말했다.

우산동, 월곡동에서는 민노당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도 감지됐다.

동산 아파트에 사는 심모(35)씨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신물이 난다”며 “참신한 공약과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는 민노당 조삼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도 적잖았다. 소촌동 오토바이 센터 이모(27)씨는 “고민해서 찍어봐야 서민 생활은 별로 달라 지지 않더라”며 투표 거부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김동철 민주당 후보는 이날 동곡동 지역에서 릴레이 유세를 펼치며 한나라당 견제와 지역 발전 적임자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고, 조재현 한나라당 후보도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만들어달라”고 표밭갈이에 총력을 폈다.

민노당 조삼수 후보와 평화가정당 박정수 후보도 거리유세를 통해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송병태 후보는 광산 5일시장 등지에서 표밭갈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8대 총선을 3일 남겨둔 6일 김동철 민주당 후보는 광산구 동곡동 애호박 공동출하장을 방문해 농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왼쪽〉, 송병태 무소속 후보는 하남 매일시장 상인들을 찾아 한표를 당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후보 단일화 막판 변수로

목포·전주 완산갑·완산 을 성사 … 호남 선거판도 요동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부상하면서 호남지역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5일 목포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정영식 후보와 무소속 이상열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정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최근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영식-이상열 두 후보의 지지율의 합산은 무소속 박지원 후보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후보단일화 효과로 정영식 민주당 후보가 선거 막판 무소속의 박지원 후보를 따라잡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당장 5~7%의 지지율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후보단일화 효과는 부동층에 영향을 미쳐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박지원 후보 측은 “약간의 지지율 변동은 있겠지만 이미 판이 짜여진 상태라는 점에서 대세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정략적 후보단일화는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행위며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전주 완산 갑에서 무소속 유철갑 후보가 경찰청장 출신 무소속 이무영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완산 갑의 선거 판세는 장영달 민주당 후보와 이무영 무소속 후보의 치열한 혼전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완산 을에서도 무소속 심영배 후보가 김완자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반면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됐던 경기 고양 덕양 갑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단일화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맞붙은 서울 은평 을의 경우 민주당 송미화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한나라당 홍정욱,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노원병에서도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진보신당 심상정(고양 덕양 갑) 후보는 민주당 한평석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데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지역구 주민과 저를 속인 기만 행위로 결국 한나라당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총선 5대 관전 포인트

① 한 ‘안정 과반’ 확보할까
②민주당 100석 가능한가
③무소속 돌풍 어디까지
④여야 거물들의 운명은
⑤비례대표 의석 분포는

18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9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 초기에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방향과 여야관계 설정 등 전반적인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4년간의 정국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8대 총선의 5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한다.

◇‘안정과반’ 확보하나=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지탱해줄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 여부다. 지난 2일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나라당이 ‘170석±α’를 획득,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막판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독주 견제론’이 먹혀들면서 부동표가 야당으로 결집될 경우에는 접전지역에서 대거 패배하면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견제 세력’ 구축하나=민주당은 견제야당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헌저지선(100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그간 각 기관의 여론조사 전망치를 보면 민주당은 70~90석 가량을 확보하는 데 그쳐 목표치 달성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특히 피말리는 경합지역이 속출하는 등 ‘살얼음’ 판세가 이어지고 있고 투표 확실층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 민주당은 현 의석수의 반토막 수준인 70석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 ‘돌풍’ 어디까지=이번 총선의 또 하나의 화두는 무소속 돌풍이다. 특히 광주에선 남구의 강운태 후보가 타 후보들을 앞서 나가고 있으며 광산갑의 송병태 후보도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남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전남 무안·신안),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목포), 해남·완도·진도의 김영록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 ‘거물’들 운명 주목=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민주당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서울 동작을에서 정치생명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또 ‘정치 1번지’ 종로에 출전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빅매치를 벌이고 있다. 은평을에 출마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권 실세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석분포는=비례대표 의석수는 모두 54석으로,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이 현재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27~29석 정도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 많고 15~20% 사이를 오르내리는 통합민주당은 목표치인 15석에 약간 못 미치는 13~14석 정도에 그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친박연대 5석, 자유선진당 3석, 창조한국당과 민노당 각각 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달 중순 창당한 진보신당은 지지율이 1~3%에 불과해 1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행기기자 redplane@